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40호 【루계 제22992호】 주체99 (2010) 년 2월 9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 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인 왕가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효명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왕가서부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의 구두친서를 정중히 전달하고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왕가서부장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5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5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조국과 민족번영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선군조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공화국기폭에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기념 5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근로자들, 남포시와 강서구역 청산리의 일군들, 모범적인 농장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리용무동지, 최태복동지, 김정각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사상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사상정신력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의 땅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체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신것은 우리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이 굳건히 다져지고 당 및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방법,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여온 지난 50년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당의 령도방법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대중령도방법을 옳게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위력하고 혁명적인 대중지도사상, 대중지도방법이다. 청산리정신의 기본요구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며 청산리방법에서 기본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는 주체적인 대중령도방법이 탄생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특출한 정치실력, 이민위천사상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대중지도사상, 한지역의 실태에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꿰뚫어보시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며 그 생활력이 확고히 담보되는 대중지도방법을 창조한 인민의 수령을 알지 못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어렵고 복잡한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사소한 곡절도 없이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정치풍파와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었다. 대중령도방법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위업승리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구현되여왔다.

어버이수령님의 대중령도방법을 그대로 구현하여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맞게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정연한 사업체계,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가 비상히 강화되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오시는 나날에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기적창조의 묘술도 밝혀주시고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빛나는 구현이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대중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방법을 전당에 일반화하여 사상의 위력으로 난국을 타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되고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전성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이 꽃펴나는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펼쳐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인민의 수령,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여온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으로, 행운으로 되는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한 위력한 무기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고기준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이다.

우리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 당의 유일적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모든 문제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토의하고 당정책적요구와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그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진행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체계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 당의 령도는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킨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주체의 대중지도사상, 대중령도방법을 틀어쥐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게 한 원동력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혁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관건적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는 전기간 일군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교양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모든 사업을 당적, 정치적방법으로 해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사업은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으며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오늘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진격의 앞장에서 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는 현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이다.

대중지도방법의 생활력이자 대중의 정신력의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지도사상,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대중의 사상정신력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불러일으키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왔다.

오늘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은 인민생활대고조를 적극 추동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천만군민이 숨결과 보폭을 따라세우며 폭풍쳐 내달리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령도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앞으로도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것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사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서사시로 찬란히 수놓아질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전당, 전민을 새로운 총공세에로 부르고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사회주의건설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과시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고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로동자,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도 의논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오직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신대로만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령도에 관한 혁명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일군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철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인 성강의 로동계급과 녕원발전소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워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군인건설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의 대고조격전장들에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전국의 2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조국청사에 특기할 격동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펼쳐놓으신데 이어 새해 정초부터 눈보라강추위속에서 강행군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우리 일군들의 심장을 무한한 충정과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것, 이것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길이며 여기에 우리가 오늘의 총공세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비결이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천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야 한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화의 목표를 세워도 현실속에서 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도 대중을 발동하고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의창발성에 의거하여 밀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오늘의 총공세의 앞장에 선 김철의 일군들과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 일당백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대고조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상하가 합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고 오늘의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을 맡아나선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금속,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생산적앙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우리 당의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정치사업을 현실에 접근시키고 화선식으로 패기있게 벌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로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송풍기가 되여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바로하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모든 힘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향시켜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혁명적이며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더욱 드세차게 벌림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륜전기재들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륜전기재들을 보내시였다.

륜전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8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륜전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새해 정초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별감사문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수많은 륜전기재들을 보내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륜전기재들에는 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냄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올해공동사업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힘있게 선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백두산혁명강군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전반적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는데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륜전기재들을 애호관리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희천발전소를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네팔기자협회에서 선물과 《2009년 평화상》을, 뻬루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네팔기자협회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3일 만주 라뜨나 사키야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장용철 네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네팔기자협회에서 《2009년 평화상》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2009년 평화상》을 전달하는 의식이 3일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네팔기자협회,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의식에 참가하였다.

의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2009년 평화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장용철 네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의식에서 만주 라뜨나 사키야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2009년에 국제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복잡하였지만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여 《2009년 평화상》을 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1월 29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통신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1일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9월제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9월제철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승리와 번영의 한길을 달려온 기업소의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조국땅 서북변에 또 하나의 종합적야금기지가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기업소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압연직장의 압연기들에서 줄줄이 흘러나오는 각종 규격의 강재들과 차곡히 쌓여있는 강재더미를 보시고 현대적인 압연직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덕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덕현광산은 대규모의 철광석생산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광산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선광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상한 열의를 안고 새해전투에 진입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지금 전국도처에서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기적이 련일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2일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안북도의 도로들을 돌아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도로들을 특색이 있으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끝낸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하면서 통신은 그이께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3일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호텔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개건된 향산호텔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을뿐아니라 봉사기지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호텔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향산호텔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호텔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향산호텔의 극장에서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명절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네팔 까뜨만두, 인디아 뉴델리에서는 경축집회가, 몽골 울란바따르에서는 토론회가 1월 29일과 2월 3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네팔기자협회, 인디아지식인주체사상연구회, 인디아근로녀성주체철학연구회,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등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토론들이 있었다.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밤 데브 고우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오늘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우리 네팔도 조선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워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인디아지식인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브이. 케이. 쵸프라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빛내이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계신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대중지도사상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의 기념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고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을 파감히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5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대중령도의 원칙과 방법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원칙과 방법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없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입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9(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은 그에 맞게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몸소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령도원칙과 방법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려 보름동안에 걸쳐 진행하신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대중령도사상과 방법을 창조하신 력사의 나날이였습니다.

이른새벽의 숫눈길을 헤치시며 농민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생활형편을 세심히 알아보시는것으로부터 현지지도를 시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과 담화도 하시고 회의도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며 우리 당의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입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는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사상과 요구가 일관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가장 정확히 보장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이민위천을 숭고한 정치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혁명적령도예술의 결정체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중앙이 도를, 도가 군을, 군이 리를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체계, 우가아래를 도와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극복되고 경제사업을 아래에 내려가 직접 조직집행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사업기풍이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하시여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관리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확립하신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참다운 모범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있고 그것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지도관리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반사회주의광풍이 휘몰아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실패나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사회전반을 혁명의 요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훌륭히 관리운영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중령도사상과 방법의 위대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령도방법을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마땅히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주체의 대중령도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하부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이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지고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당사업이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참신한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진실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당의 군중로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심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근절되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더욱 굳게 다져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여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력사에 류례없는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이 만난을 이겨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고 꿋꿋이 전진시켜온 로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확고히 견지하시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혁명승리의 앞길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령도의 나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에서 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게 되였으며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올라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될수 있었습니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령도의 전로정을 현지지도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에도 무한대한 정력을 지니시고 총공격전의 진두에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위대한 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소식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온 나라에 대고조의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나게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고 만복이 꽃펴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고 사회주의건설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총진군대오에 무궁무진한 활력을 부어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환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실록으로 아로새겨져 후손만대에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창조 50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대중지도사상과 방법을 창조하시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수령님의 령도방법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구현하시여 정력적인 현지지도 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번영의 해로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현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빛내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위대한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령도의 거장이십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천리방선초소들과 대고조전투장들에로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들끓는 현실속에서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혁명방식이야말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최고정화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는 위대한 주체의 혁명령도방법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폭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중지도사상과 방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방법대로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일본새를 적극 발휘해나가야 합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과 혁명방식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펴기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고조진군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지니고 영웅적위훈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세계적인것을 창조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더욱 거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을 지침으로 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심화시키며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옳게 활용하면서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며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언제나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인민의 진정한 복무자,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망있는 지휘관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영웅적인 투쟁으로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선군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륭성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에서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린 교직원, 학생들은 대오앞에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이들이지만 수령님의 대학현지지도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가슴속에 넘치는 격정과 더불어 다지는 결의는 더욱더 새롭고 굳건하다.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오중흡동지처럼 세월은 흐르고 강산이 열번만 변하여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결사옹위해갈 억센 심장의 맹세, 드높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이것이 혁명적인생관의 근본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모든 교직원, 학생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목표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 충실성교양주제의 웅변모임과 이야기모임, 해설모임과 예술소품공연, 문답식학습경연, 충실성교양도서와 직관교양판을 통한 교양사업…

대학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광학원자물리실험실과 라지오공학실험실, 물리교수법연구실과 기숙사호실 등 대학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곳들이 많다.

대학에서는 지난 기간 대학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사업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강선에서 타오른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번지던 어느날 대학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되새겨보는 학장허창섭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의 귀전에는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교직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대학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이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사범대학은 교원들을 키우는《원종장》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대학을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으로 부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그는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다. 그날 대학책임일군들은 밤깊도록 교직원,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설계하였다.

며칠후 교직원, 학생들의 결의모임에서 발표된 대학결의목표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들이 첫 조항에 새겨졌다.

관리학연구실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실험실습실들의 개건, 전자도서열람실과 정보봉사실꾸리기, 직관교양판들을 새롭게 제작…

리현웅, 최경화동무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짧은 기간에 청사들과 기숙사개건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강좌장 오성일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타는 열의속에 전기공학실험실을 비롯하여 많은 실험실습실들이 훌륭하게 꾸려졌다. 교사의 곳곳에 교양거점들이 새롭게 꾸려지고 구내도로가 일매지게 포장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한번의 교양사업을 진행하여도 그것이 학생들의 가슴속에 값높은 삶을 추동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이 되게 하는것이 이곳 대학일군들이 일관하게 틀어쥔 원칙이다.

여기에서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그것은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수행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애쓴것이다.

교양마당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연마기부족으로 공사는 일련의 난관에 부닥쳤다. 연마공정을 앞세우지 못한다면 제정된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연마기를 구입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제기하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물론 연마기를 구입하는것은 쉬운 방도였지만 많은 자금이 들어야 하였다. 보다 심각한것은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는 그릇된 경향이였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좌우명으로 간직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은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진 문도 닫긴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자신심에 넘쳐있는 사람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자료들을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었다. 교직원들속에 들어간 일군은 그들과 함께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끝내 자체의 힘으로 실용성이 큰 연마기를 만들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교직원, 학생들은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사업과 생활을 통해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교직원, 학생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들의 깨끗한 마음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글작품집 《빛나라 2월의 고향집이여》에 그대로 어려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실성은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실험실습실과 교실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수십점에 달하는 콤퓨터와 결합된 실험설비와 기구들이 창안되였으며 김만섭, 김일광동무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원들이 창의고안의 명수들로 성장하였다.

보다 큰 성과는 교직원, 학생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체질화한 선군혁명전위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육탄용사, 성새, 방패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은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은 남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이 8일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밀영에 건립된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은《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리금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선창에 화답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의 청년전위들과 전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처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견결히 옹위하는 제일결사대가 될 결의를 표명하였다.

청소년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견결한 혁명가, 청년전위,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는 유능한 청년인재가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소년학생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불패의 청년전위대오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본분을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혁명적인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이어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철령답사를 통한 위대성교양 활발

강원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소년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강원도에서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통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기간 도에서는 도안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선군시대의 청년영웅, 총폭탄영웅들로 준비해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왔다.

해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도안의 청년들의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통한 교양 역시 그러한 사업의 한 고리로 되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의 첫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이 진행되였다. 사나운 강추위를 과감히 뚫고 헤치며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의 씩씩한 모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우는 길에 청춘의 슬기와 재능을 깡그리 바쳐갈 불타는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었다.

답사행군에 이어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의 결의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결의모임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철령과 더불어 청춘의 리상을 마음껏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으며 당면하게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에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이 되게 하겠다는것을 엄숙히 결의하였다.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은 철령에로의 답사행군기간 철령혁명사적지에 대한 관리사업을 진행한것은 물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수많이 찾아한것으로 하여 선군조선의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답사 역시 도안의 청년들로 하여금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할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박 옥 경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련합성명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체제전복시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에 추종하여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제거해보려는《선핵폐기》책동은 더욱더 집요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체제전복을 노린 정탐모략소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조선서해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를 노리고 벌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모험적인 군사적준동이고 전연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하여 감행하고있는 분별없는 《대북내부교란》작전이다.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만 하여도 전연으로부터 종심으로 확대되고있으며 온갖 정탐력량과 수단이 투입된 어리석은 체제전복책동은 우리 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깊이까지 뻗치고있다.

여기에는 남조선의 《국정원》파 《기무사》를 비롯한 악명높은 정탐모략기구들이 돌격대로 나서고있으며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당국기관들, 이들의 직접적인 조종과 지휘를 받고있는 군부호전집단들과 극우보수세력들, 지어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두고 오물장으로 밀려간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되고있다.

모든 움직임은 남조선당국이 있을수도 없는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이미 완성한 《작전계획 5029》와 《비상통치계획-부흥》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심으로 뭉치고 선군으로 위력한 필승불패의 우리 제도를 감히 건드려보려는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백배해주고있다.

수수방관할수 없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의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은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어중이떠중이들의 반인민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쉴 곳이 없다.

2.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력량과 안전보위수단이 있다.

3. 남조선당국은 력대 반공화국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들의 쓰디쓴 말로를 뒤따르지 않으려거든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발광하고있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되였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보위하는것은 억만년 변함없는 우리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첫째가는 사명이고 본분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조국의 그날 《현대판을사오적》이 되여 민족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2월 8일
평 양

영웅의 넋을 이어가며

풍서군 리창도중학교를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충실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가지고 교양하는것입니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꾸려진 교사며 여러가지 체육기재들이 그윽하게 갖추어진 운동장, 살구나무, 추리나무를 비롯하여 하얀 서리꽃을 활짝 피우며 교정을 빙 둘러싼 나무들…

이것이 얼마전 우리가 찾은 풍서군 리창도중학교의 모습이였다. 따스한 해빛이 반사되여 밝은 빛을 뿌리는 창가들이며 하얀 눈에 포근히 파묻힌 교정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교장 리경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교원실에 들어서니 교수방법연구토론회가 한창이였다. 분과장들인 김명희, 심광록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떻게 하면 깊이있게 심어줄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하고있었다. 부피두터운 교양자료집들과 여러 경연과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교육방법소론문들에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깨끗한 충실성을 깊이 심어주려는 교직원들의 불타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슴배여있었다.

우리는 교사앞에 세워진 리창도영웅의 동상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었다. 교장은 학교에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 영웅의 동상앞에서 결의모임과 이야기발표모임 등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어 학생들앞에 나선 교장의 맑고 쟁쟁한 목소리가 교정에 울려퍼졌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소년단원의 전형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리창도학생은 동무들처럼 평범한 소년단원이였습니다. 그에게는 꿈도 많았고 포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한 순간에 〈조국을 위하여 아동단원들처럼 한목숨 바치자!〉라고 웨치며 활활 타래쳐오르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조국의 귀중한 산림과 동무들을 구원하는 영웅적소행을 발휘하였습니다. 학생동무들도 리창도영웅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선군시대의 총폭탄용사로 튼튼히 준비합시다.》

커다란 흥분을 안고 교정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무성한 잣나무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진 수십정보에 달하는 《소년단림》이 펼쳐졌다.

대지에 억센 뿌리를 박고 거목으로 우뚝 서있는 잣나무들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날 이곳 학생들만이 아닌 수백만 총폭탄용사들의 드림없는 맹세와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담은듯 푸른 잎새를 한껏 설레이며 더욱더 창공높이 치솟아오르고있는 듯싶었다.

본사기자

당과 국가간부들

청산리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50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내각성원들이 7일 강서구역 청산리를 참관하였다.

력사의 땅을 찾은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대중령도사상과 방법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참관자들은 청산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적비를 돌아보고 청산리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49(1960)년 2월 보름동안에 걸쳐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농민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생활형편을 세심히 알아보시는것으로부터 현지지도를 시작하시였으며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과 담화도 하시고 회의도 지도하시면서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일군들의 사업방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전하는 민주선전실을 비롯한 사적건물들과 사적자료들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과 문화회관 등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농장원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가 있음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느끼군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방문기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을 목격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

여러곳 참관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이 8일 만수대거리를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완공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인민의 행복이 마련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들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대과일생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변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으며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조선중앙통신】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돐과 새해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돐과 새해에 즈음하여 4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알렉쎄이 보로답낀 부상을 비롯한 로씨야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으며 김영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인민을 위한 한평생》, 《조선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로씨야외무성 부상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 두 나라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돐, 조선해방 65돐이 되는 올해에 쌍무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식료연구소에서

맛좋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식료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과학자들이 비상한 애국의 열정안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목표를 짧은 기일안에 달성하도록 하면서 현실에서 확증된 갖가지 가공품에 대한 연구성과를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는 사업을 박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소장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각지에 꾸려진 염소목장들에서 젖가공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해당 단위들에서 염소젖생산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능력있는 연구사들을 파견하여 젖가공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주게 하고있다. 단백식료품연구집단의 리경숙, 박선영동무들은 령도업적단위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자진하여 말고나가 선군시대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그곳 종업원들로부터《실력있는 연구사》, 《우리 연구사》로 불리우고있다.

콩가공연구집단에서는 콩을 가공하여 산유와 요그르트를 만드는데 성공한 단백식료품연구집단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품종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케피르 등 여러가지 가공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식용석고를 첨가제로 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연두부를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완성도입한 기세드높이 해당 단위와 지역들에서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첨가제를 리용할수 있도록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평양시에 갖가지 장아찌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과 김치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또한 염소젖과 콩즙을 리용한 치즈생산연구와 유기산에 의한 키틴질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어느 한 식료공장에 나가 삼복더위때 콩우유의 변질을 막고 보관기일을 늘일수 있게 한 연구도입성과를 다른 단위들에서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있다.

본사기자 오 철 훈

사랑과 믿음으로 무적강군을 키우시는 령장

《인민군의 무장장비는 세인을 놀래운다.》,《조선인민군은 훈련도 잘되고 정신무장도 잘되여있으며 사기도 높고 장비수준도 대단하다.》,《이북인민군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위력을 갖춘 필승의 무적강군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남조선에서 군사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응답자들은 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품격과 자질, 문무와 덕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희세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어린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탁월한 령도력》이라고 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야말로 사랑과 믿음으로 무적의 강군을 육성하고계시는 위대한 령장이시다.》라고 칭송하였다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군대라고 하면 전쟁을 위한 폭력수단, 명령과 복종만이 지배하는것으로만 간주하여왔다. 나라마다 각이한 류형의 군대가 있지만 례외없이 명령에 대한 복종 하나만으로 군기를 유지해왔고 또 그것외의 다른 방도는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군의 실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군대의 모습앞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북의 인민군병사들은 왜 김정일국방위원장님만 뵈오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렇게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무기중심이 아니라 병사중심의 관점을 지니고계시며 병사들의 사상의지가 전쟁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신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직접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전군을 찾으시며 격려하고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신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록화물과 TV 등을 통한 병사들의 교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한 산중부대를 위해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게 하고 TV화면크기도 가늠해보면서 화면이 큰 TV를 전군에 일시에 보내주신 일도 있다고 한다. TV에 〈병사의 고향소식〉이라는 편집물을 제작하여 방영하도록 하신분도, 그 방영시간을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볼수 있는 시간으로 고치게 하신분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사들을 생각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라고 한다.

하기에 북의 군인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뵈오면 너무도 감격하여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있는것이다.》

세상에 명성을 뽐내는 군사가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령도자는 없다.

설명절날에도 병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자신의 생신날에조차 머나먼 초소를 찾으시여 병사들의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쉬임없이 병사들을 찾으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장령으로부터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대중이 단순한 명령과 복종관계로가 아니라 사상과 신념, 사랑과 의리의 관계로 굳게 뭉쳐있다고 입을 모으는것이다.

그러한 남녘의 민심을 담아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군인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육친적사랑과 은정은 정말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듣던바그대로 따뜻하고 인정이 깊은분이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렇듯 쉬임없이 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군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니 어찌 군기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군통수들이 적지 않지만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군을 지휘하시는 령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극진하기에 이북군인들은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 수령결사옹위의 맹세가를 소리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남조선군의 한 사병이 쓴 수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이북군인들의 뜨거운 흠모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북군인들의 정신무장이 완벽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군 한다. 얼마나 신심이 넘치고 락관이 넘치는 그들의 노래인가.

누구나 자기가 복무하는 군에 대한 애착을 가지려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도대체 애착을 가질만 한 아무것도 없다. 긍지가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무적강군의 위용,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이북의 인민군대가 정말 부럽다. 군에 복무하려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당당한 수호자역할을 하는 이북군대 같은데서 해야 한다.

이북군이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할 막강한 위용을 가질수 있은것은 군의 사명이 정의롭고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선군령도와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때문이다.

천출명장의 통솔을 받는 군대, 내리는 사랑이 넘치고 받드는 의리가 뜨거운 세계제일의 군대인 김정일장군님의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싶다.》

그의 이 글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과 신념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동경심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름름한 모습을 바라보며 남녘겨레들은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으며 민족의 희망찬 앞길에 대해 락관하고있다.

그럴수록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그들의 일념도 더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본사기자 복 은 희

《안보》를 코에 건 북침전쟁모의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쳐보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얼마전 제24차 남조선미국《안보정책구상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서 내외호전광들은 서해해상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정상적인 포사격훈련을 터무니없이 그 무슨 《도발》로 묘사하며 북의 동향에 대한 《정밀감시》니,《유사시에 대비한 만단의 태세》니,《정책공조강화》니 하는 호전적망발들을 거침없이 내뱉았다.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미증원군의 전력보장》과 《핵확장억제력제공》, 남조선강점 미군의 《안정적주둔조건보장》 등의 내용으로 된 남조선미국《국방지침》제정문제와 관련한 꿍꿍이도 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있으며 이미 짜놓은 북침전쟁각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는것이 이번의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이 이번 모의판에서 미국상전과 함께 그 누구의 《위협》이니,《안보》니 하는 판에 박은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것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기만놀음이다.

지금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대결전쟁책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 무엄하게도 《선제타격》 폭언을 함부로 궤치고있으며 그 무슨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비상통치계획》이라는 도발적인 북침각본을 꾸미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올해에 들어와 얼마 안되는 기간에만도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훈련》이니, 《야외기동훈련》이니,《혹한기전술훈련》이니 하는 갖가지 명목의 전쟁연습을 사흘이 멀다하게 벌리였다. 이것은 있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전쟁연습의 포성을 요란히 터쳐 정세를 긴장시키다가 일단 기회가 조성되면 전면적인 북침선제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모험적흉계의 발로이다.

오늘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고있으며 그를 위해 정전협정을 하루빨리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호전광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외세와 위험한 군사적모의와 전쟁연습소동을 강화하며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역행하고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는가.

사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운운하는 《대화》와 《관계개선》이란것이 겉과 속이 다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새해정초부터 우리를 겨냥한 극단적인 《선제타격》폭언을 쳬치며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처한 북침각본을 꾸며내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안보정책구상회의》라는것을 열고 위험한 전쟁모의까지 한것은 그들이 올해에도 겨레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지향에 역행하려 한다는 실증으로 된다.

남조선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의 전쟁광기는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망동이며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를 한사코 해치려고 날뛰는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며 천백배의 보복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작당하여 벌리는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이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엄 일 규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가 《민족최대의 명절 2.16경축 김정일화전시회》를 2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하였다.

전시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령사관원들, 중국에 체류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과 중국 료녕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태양의 꽃 김정일화는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할것이라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만민의 마음담아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로씨야고통련에서 2.16기념토론회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4일 기념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최봉길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재로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석성 로씨야고통련 1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할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의 오만과 전횡을 무자비하게 쳐부시는 백두의 천출위인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민족대단합으로 빛내일것을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4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민족공동의 행사를 성사시키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민족대단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를 중심으로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할것이라고 결의문은 밝혔다.

결의문은 6.15를 계기로 범국민평화통일대회, 평화통일박람회, 기념토론회 등을 열고 통일운동에로 민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데 대해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단체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운동을 확대시키고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누가 수술대상인가

며칠전 《한나라당》대표가 그 무슨 《국회》 관련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은 오늘도 만사람의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세계여론들이 《싸움판민주주의》,《남조선정치의 고질병》이라고 야유, 조소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였다. 오죽했으면 어느 한 극우보수인물까지도 《국회》가 《패거리의 힘, 주먹의 힘, 곤봉의 힘》이 판을 치는 《야만들의 란장판》으로 전락되였다고 개탄하였겠는가.

《국회》 폭력사태를 조성한 장본인들이 그에 대해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도리여 제편에서 그 무슨 《법안》이니,《근본적인 수술》이니 하며 매를 들고 나섰으니 참으로 낯가죽이 두텁기 짝이 없다.

《〈국회〉 란장판을 끌장내자면 〈한나라당〉을 해체할 〈법안〉을 만들고 그 당 족속들부터 수술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한나라당》을 저주규탄하는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조 남 수

온 겨레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론평에서 강조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가 2일 론평을 발표하여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론평은 지금 북남관계가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해나선 현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하며 북남사이의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리공영의 립장에서 서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한사코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온 겨레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교조》 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항의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4일 론평을 발표하여 단체성원들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였다.

론평은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시국선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리유로 《전교조》 인천지부장 임병구를 비롯한 판계자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시국선언의 정당성은 이미 확증되였다고 하면서 론평은 단체가 이번 판결을 무효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단체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의 《세종시수정안》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진행

【개성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8일 개성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온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금강산관광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경위가 어떠하든 즉시 유감표명과 그 진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였다.

특히 지난해 8월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주고 현대측과 남측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공동보도문을 공식발표하였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우리의 선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화답할 대신 관광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신변안전보장》 문제를 내세우며 관광재개를 가로막았을뿐아니라 그것을 대결적목적에 악용하여왔다.

《금강산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금강산지구의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하였던 남측인원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일어난 불상사이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것이며 그 책임은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남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이를 구실로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관광재개를 회피하는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이다.

우리측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다 밝히고 재발방지 및 남측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담보해준 조건에서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나 조건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남측이 진심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철회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이번 접촉을 통하여 중단된 관광을 하루빨리 다시 시작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성지구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할데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제안이 담긴 합의서초안을 제시하고 그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올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을 받아들일 대신 그 무슨 《3대조건》이니 뭐니 하는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광재개를 할수 없다고 생억지를 썼는가 하면 그 무슨 《묵념》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 등 매우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며 문제토의에 고의적으로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우리측은 《진상규명》이니 뭐니 하면서 딴전을 부리며 지연전술에 매달리는 남측의 오만하고도 불성실한 태도와 억지주장을 사리정연한 론리와 사실적자료들을 가지고 론박하면서 어떻게 하나 관광재개문제에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저들의 부당한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연구》니 뭐니 하며 문제토의마저 회피하였을뿐아니라 다음번접촉날자를 정하는것마저 거부하였다.

결국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남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였다.

북과 남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비렬한 정치사찰행위를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이 지난 1월 30일 서울의 《대검찰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경찰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공무원로조성원들이 민주로동당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떠들어대며 29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놀음을 벌려놓은데 대해 비난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현 《정권》의 계획적인 탄압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특히 경찰이 민주로동당의 인터네트싸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당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조사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당국이 진보정당을 파괴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와 정치사찰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부당한 농업정책을 규탄

남조선의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이 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부당한 농업정책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부》의 농산물수입개방 등 반민중적악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당국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 《정부》가 반민중적 농업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체의 모든 성원들이 떨쳐일어나 항의투쟁을 벌릴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연기놀음의 내막

최근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는 《북핵위협》과 그 무슨 《안보공백》을 구실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동북아미래토론회》라는데서 남조선《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에 넘어오는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느니,《국방부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있다.》느니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겨냥한 발언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 직후 리승만《정권》으로부터 넘겨받은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당국에 되돌려주기로 합의한 시기는 2007년 2월이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각계에서 반미기운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더이상 외면할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였다. 저들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의 중요한 수단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쥐고있을 경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이 더욱 높아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더우기 미국이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있는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유사시》 조선전쟁에뿐아니라 세계각지의 분쟁지역들에 시급히 투입한다는 미군부의 새로운 침략교리인 《전략적유연성》에 맞지 않는것이였다.

한편 미국은 북침전쟁도발시 미군의 인명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상작전은 남조선군에 넘기고 저들은 해, 공군작전을 위주로 맡는 새로운 련합작전체계를 꾀하였다. 그 핵심이 바로 남조선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어 그들을 북침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저들은 남조선군을 협동작전으로 지원하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에 의해 이전 《정권》시기인 2007년 2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남조선에 넘긴다는 합의가 정식 이루어지게 되였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실현된다고 하여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남조선군의 처지에서는 크게 달라질것이 없다. 남조선군은 실제상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협조본부》를 비롯한 새로운 군사지휘체계에 종속되게 된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외신들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으로 설사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해도 미군부가 남조선군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통제권을 《군사협조본부》를 비롯한 여러 계통의 기구들을 통해 계속 행사하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보다싶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는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눅잦히는 한편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체계를 유지하며 북침야망을 보다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음흉한 계책에 따른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한나라당》 패거리들과 보수언론들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가 이루어지자 《미국과의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안보위협이 증대》된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무슨 큰 변이 나는듯이 야단법석하였다. 친미보수세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를 뒤집으려고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상전의 거부로 실현될수 없게 되자 최소한 그 시기라도 연장해볼 심산으로 갖은짓을 다하였다.

최근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그 무슨 《위협》과 조선반도《안보상황》에 대해 떠들어대며 당국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의 연기를 거듭 요구해나섰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저들이 미국에 의존하던 전략정보수집능력 등을 2012년까지 갖추기 어렵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에 관한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계속 내돌리는 한편 상전에게 반환연기를 끈덕지게 애걸해왔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에 관여한 전적이 있는 20여명의 남조선군부퇴물들도 남조선당국자와 미국대통령에게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계획을 재검토해줄것을 요구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극악한 반공화국대결분자이며 악질호전광인 김태영역도가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의 연기를 공공연히 주장한것이다.

남조선의 극우보수패거리들이 벌려놓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연기소동은 그들의 추악한 친미사대적근성의 뚜렷한 발로로 된다. 력대로 민족을 등지고 미국의 옷섶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온 이자들은 상전의 음흉한 속심은 알지도 못하고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저들에 대한 미국의 외면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그렇듯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실로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며 그에 붙어사는 매국역적들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것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보호》밑에서 살려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 중요한 리유는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도발준비태세를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지금 남조선군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것을 구실로 북침전쟁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할것을 꾀하면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군부패거리들은 지난해 《군사정책방향》의 중심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따른 작전능력 제고, 첨단장비확보에 두었다. 이에 따라 호전광들은 기존의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하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초안을 작성한데 기초하여 각 군종, 병종별작전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있다. 지난해 8월 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감행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바로 그에 따른것이다.

지금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연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얼빠진 소동을 너희들 잘논다 하고 지켜보면서 남조선당국의 요구에 애매하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차관보는 2012년으로 예견된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시기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느니, 이 문제에 대한 《고위급대화가 필요하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반면에 미국무성 차관보의 이런 발언이 있은 직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2012년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라고 못박았다. 남조선보수패당을 옭아맨 끈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저들에게 바싹 끌려들게 함으로써 침략적인 대조선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용이하게 써먹으려는 미국의 속심은 여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계책에 놀아나 꼬물만 한 자주성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연기를 떠들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김태영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역적들인가.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 아니라 외세를 중시하며 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을 력사는 반드시 심판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정세를 긴장시키는 군사소동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후에도 미군과 남조선군의 협동작전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는 화약내풍기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는 남조선군이 《자체방위》를 할수 있다는것은 큰 《오해》이며 미국은 남조선을 《방위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미군과 남조선군은 앞으로도 하나의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이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억제력》과 정보제공이 계속될것이라는 소리도 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의 기만성과 대조선침략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망발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더 틀어쥐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기도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의 재편성배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군을 저들의 작전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준비시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은 이에 따른 음흉한 군사작전계획수립책동이다. 그것은 또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공동군사행동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지역군으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신속기동군으로 준비시키며 남조선군을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은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둔 위험한 군사적책동이다.

미국이 그 무슨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을 벌려놓고 마치도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손을 떼려는것처럼 하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대조선침략정책의 본질을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오도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미군과 남조선군의 협동작전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조선군이 남조선《방위》를 전담할수 있다는것자체가 《오해》라고 떠벌인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가 앞으로 《핵억제력》을 포함한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줴친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유사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한것이다.

보다싶이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존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얼마전에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그 무슨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군사연습을 벌린것도 조선전쟁을 노린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군이 《자위대》와 조선반도《유사시》공동작전을 더욱 련마하였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평화가 아니라 긴장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조밀하게 배치되여있고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을 지피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은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이미전에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핵선제타격을 조선전쟁의 기본방식으로 정하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닌 아시아와 세계를 핵전쟁의 재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열점지인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실은 평화협정이 체결됨이 없이는 조미적대관계가 해소될수 없는것은 물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여지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치상태가 가셔지고 조미사이의 신뢰보장문제도 자연히 풀려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화적환경이 조성될수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을 국책으로 내세우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 전쟁준비에 광분한다면 조미관계는 언제 가도 풀릴수 없고 정세는 최악의 상태에 처할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고 미국이 강권과 힘의 립장에서 그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것은 오산이다.

자주권존중과 평등, 공정성의 원칙에서 조미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립장에 서는것만이 문제해결의 옳은 선택으로 된다.

미국이 구태의연하게 힘의 립장에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어째보려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보장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고 새 조선전쟁준비에 광분하는것은 파렴치한 침략자, 평화파괴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세계면전에 더욱더 드러내보여주는것으로 될뿐이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백 문 규

《시대의 위인》

벌가리아신문 《미썰》 1월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시대의 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벌가리아전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장기간의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김일성주석께서 세계사회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기여하신 거대한 공적과 국가령도자로서의 주석의 높으신 권위를 칭송하여 그이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들이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조직되고있다.

⁂ ⁂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쟈까를로 엘리아 발로리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1월 27일 이딸리아 라이TV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그이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신 인간사랑의 참다운 귀감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존시 나와 나의 어머니를 여러차례 접견해주시고 사람의 한생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김일성주석의 말씀을 신조로 삼았다.

1월 28일 이딸리아 라이TV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쟈까를로 엘리아 발로리와 그의 어머니를 접견해주시는 장면들과 함께 인터뷰소식을 보도하였다.

민주꽁고정당, 단체들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민주꽁고 진정한 루뭄바주의애국당, 사회주의인민련합,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로동계시민협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가 지난 1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제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0년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기간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체결이 급선무이며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전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에 응해나설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호소한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여러 나라 신문이 2.16기념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기네신문 《라 누벨 트리뷴》 1월 22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령도예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승리와 성과들은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의 특징은 우선 원칙성과 신축성을 능숙하게 결합시켜 불리한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신묘한 지략에 있다.

국제사회는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하는 원칙성과 첨예한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에로 몰아가는 신축성있는 지략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수호해나가는 투철한 원칙성, 급변하는 정세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지략과 전술로 불리한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것이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이다.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의 특징은 또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나가는 비상한 조직적수완에 있다.

그이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군력이 강해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도 고수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단순히 조국보위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인민군대를 나라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힘있게 추진시키자는것이 다름아닌 그이의 선군정치인것이다.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의 특징은 또한 립체전으로 혁명과 건설을 비약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완강한 전개력에 있다.

김정일각하께 있어서 립체전은 하나의 혁명방식, 령도예술로 되고있다.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립체적으로 벌려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예술은 오늘 조선인민의 경제강국건설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특출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 1월 26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일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난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우크라이나신문 《뽈따브시나》 1월 12일부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67돐 기념

로씨야에서 2일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67돐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로씨야정부청사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 위훈을 떨친 영웅들의 상봉모임과 경축음악회가 벌어졌다.

또한 모스크바시내의 전쟁로병들과 사회활동가들이 뽀클론나야산에 있는 전승기념비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에서는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영화감상회 등 행사가 있었다.

한편 볼고그라드시에서는 전쟁로병들과 각계층 시민들, 청년들이 마마예브언덕을 비롯한 시내 여러곳에 있는 전승기념비들과 추모비들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이날을 맞으며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협 조

로씨야와 베네수엘라가 얼마전 원유공업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뽈스까와 마로끄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윁남과 마쟈르는 3일 교육부문에서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통합을 다그치기 위한 알바의 노력

알바성원국들이 식량안전보장과 의약품생산 및 공급분야에서 통합을 다그치고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알바성원국 정부대표들의 회의에서는 알바—식량다민족회사창설에 관한 문건이 채택되였다.

회사는 성원국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회의참가자들은 또한 값눅고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성원국들에 공급하는 쎈터를 내올데 대해 토의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배격

수단외무성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그릇된 결정을 단호히 배격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소처리실이 그 무슨 《대량학살범죄》를 저질렀다는 리유로 제기된 수단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는것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결코 자기 나라 정부를 놀래울수도 흔들어놓을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단정부는 나라에서의 평화수립노력을 방해하는 그 어떤 위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며 다르푸르문제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

인디아외무담당 국무상이 3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은 중동평화과정에 장애를 조성할뿐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인디아는 중동지역에 공정하고 포괄적인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자결권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의 그릇된 정책 비난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주당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다.

세계적인 녀성 빈궁자 약 15억명

세계적으로 현재 약 15억명의 녀성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유엔인구기금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밝히면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문제들로 하여 세계녀성들속에서 빈궁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녀성빈궁자가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서방을 비난

남아프리카국회 의장이 최근 이란방문과정에 이 나라 국회의장과 가진 회담에서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활동을 걸고들면서도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을 오만하고 위선적인 행위로 락인하였다.

남아프리카는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란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에짚트대외무역 및 공업상은 1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공업부문에서 《깨끗하지 못한 에네르기》를 사용하고있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상품들에 그 무슨 《이산화탄소방출관련세금》을 부과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서방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는데 기후변화문제까지 악용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을 저애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서방나라들이 그릇된 무역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이란에서 위성운반로케트 시험발사

이란에서 3일 위성운반로케트 《카보쉬 3》의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로케트에는 실험설비들이 실려있었다.

한편 이날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진행된 한 의식에서 국내에서 자체로 제작한 3개의 새로운 인공지구위성과 1개의 위성운반수단이 공개되였다 한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의 공습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무인기들을 들이밀어 10여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30여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발전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

오늘은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에 즈음하여 지난 2월 5일 당, 군대의 책임일군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 함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형상한 로씨야가극 《예브게니 오네긴》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또한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영화상영주간과 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등 두 나라는 조약체결 1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새 세기의 조로친선관계발전과정은 조약이 두 나라의 리익과 시대적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뉴대와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하게 하는 법적담보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후 두 나라 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다.

조약체결이후에 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당시 로씨야대통령 웨.웨.뿌찐각하의 평양과 모스크바, 울라지보스또크에서의 상봉들은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 사변적인 계기들로서 국제정치외교사에 빛나게 장식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들로 하여 조로공동선언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되고 조로친선의 뚜렷한 발전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지난 기간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가 심화발전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두 나라 인민들은 호상 리해를 깊이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밀접히 하였다.

지난해에만도 로씨야련방 련방평의회 의장, 외무상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을 비롯한 로씨야의 여러 예술단들이 우리 나라에 찾아와 공연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로친선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조로친선관계발전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긍정적기여를 하고있다.

조로 두 나라 주변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의 확대강화와 무력증강책동 등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두 나라는 침략적군사쁠럭의 확대와 무력증강, 평화파괴책동을 반대하는데서 보조를 같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얼마전에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우리에게는 물론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주변나라들에도 좋은 환경이 마련되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로씨야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것과 같은 참혹한 세계대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익한 발기들을 내놓는 한편 나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현대적무장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의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대통령은 새해 2010년을 맞으며 한 신년사에서 올해에 맞게 될 조국전쟁승리 65돐을 당당하게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조국전쟁승리는 평화를 위해 바친 피의 대가이며 로씨야에서 해마다 전통적으로 전승절을 크게 기념하는것은 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가려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의지의 발현이다. 로씨야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국가와 안정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들에서 주목할만 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로씨야인민의 노력에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로씨야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로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립장이다. 지난 10년간의 조로관계력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것이 두 나라의 발전면에서 보나 지역의 평화보장면에서 보나 유익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선언들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보다 좋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하고있다.

조로친선의 력사는 계속 흐를것이다.

리 경 수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생활처지 악화

일본후생로동성은 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그 전해보다 3.9% 또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1991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계속되는 임금감소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 생계비가 계속 뛰여올라 주민들이 커다란 생활난을 겪고있다.

지난해 12월에 연료가격과 전기세만도 각각 12.9%, 5.8% 인상되였다.

범죄 성행

일본에서 각종 사기협잡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일본경찰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금융문서를 통한 사기협잡행위가 공식등록된것만도 7 340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95억 7 900만￥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리옹시에서 얼마전 4명의 무장한 범죄자들이 한 주물공장을 습격하여 100㎏이상의 금과 희유금속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제 침체

일본의 한 경제단체는 얼마전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도꾜에서 살림집판매량이 그 전해에 비해 16.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것과 관련된다 한다.

같은 날 유럽동맹 통계국은 지난해 11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건설부문 생산량이 그 전달보다 1.1%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네르기개발동향

현재 세계경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자원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화석연료에 기초한 경제는 대기중에 지구온난화의 주되는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대량방출을 산생시키고있다.

지난해 국제에네르기기구는 지금의 에네르기자원소비량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2030년에 세계적인 이산화탄소방출량이 1990년의 거의 2배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구기온이 6℃ 상승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온상승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된다.

오늘 환경보호형의 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최근년간 《저탄소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화석연료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깨끗한 에네르기자원소비구조로 방향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핵에네르기는 날로 높아가는 에네르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기온상승에 영향을 주는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핵에네르기의 이러한 매력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평화적핵개발에로 추동하고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에서 평화적핵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2008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건설중에 있는 원자로 34기중 19기가 아시아에 있으며 새로 조업한 원자로 39기 가운데서 28기가 역시 아시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핵에네르기를 개발, 리용하기 위한 아시아나라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도 핵에네르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풍부한 우라니움자원을 가지고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핵에네르기개발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핵동력발전을 지역의 경제발전과 결합시킴으로써 아프리카의 에네르기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인 에네르기전략을 세울것을 모색하고있다.

풍부한 원유자원을 가지고있는 중동나라들도 핵에네르기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확인된 원유매장량이 세계 제4위인 쿠웨이트는 지난 1월 프랑스와 핵개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4개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을 계획하고있는 아랍추장국련방에서는 2017년에 첫 발전소가 가동할 예정이다. 에짚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날로 높아가는 에네르기수요와 원유자원고갈에 대처하여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추진하고있다.

핵에네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나라들사이의 협조가 적극화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와 인재양성사업이 강화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은 크기가 오두막보다 작으면서도 2만세대에 전력을 공급할수 있는 성능높은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앞으로 도이췰란드에는 유럽핵에네르기지휘학원이 세워지게 된다. 유럽의 6개 핵에네르기회사의 후원하에 창설되게 되는 이 학원에서는 핵에네르기분야에 종사할 인재들을 양성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 몇해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태양에네르기발전기술도 국제적관심을 모으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태양에네르기발전기술의 도입을 국가에네르기전략의 중심고리의 하나로 정하고 거기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세계적으로 태양전지생산량에서 앞서나가고있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주택지붕들에 태양전지판들을 설치하고 태양에네르기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우주태양열발전소건설계획이 시험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원래 우주태양열발전소건설구상은 1970년대부터 론의되여왔다. 위성에서 태양에네르기를 잡아 레이자빛으로 전환하여 지상에 보내는것이 그 원리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기술부족과 자금사정으로 중도반단되였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오늘의 조건은 지난 시기 학술상의 문제로 그쳤던 이 구상이 현실화되게 하고있다.

현재 프랑스는 2020년까지 우주에 시험위성태양열발전소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있다.

한편 반도체관련 대기업들은 태양에네르기발전분야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새로운 박막형태양전지 등을 개발하고 여러 나라들에 출력이 높은 태양에네르기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다. 인디아와 캄보쟈, 요르단,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태양에네르기를 개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네르기를 적극 개발, 리용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0102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